

<도표 1>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시 소요재원(89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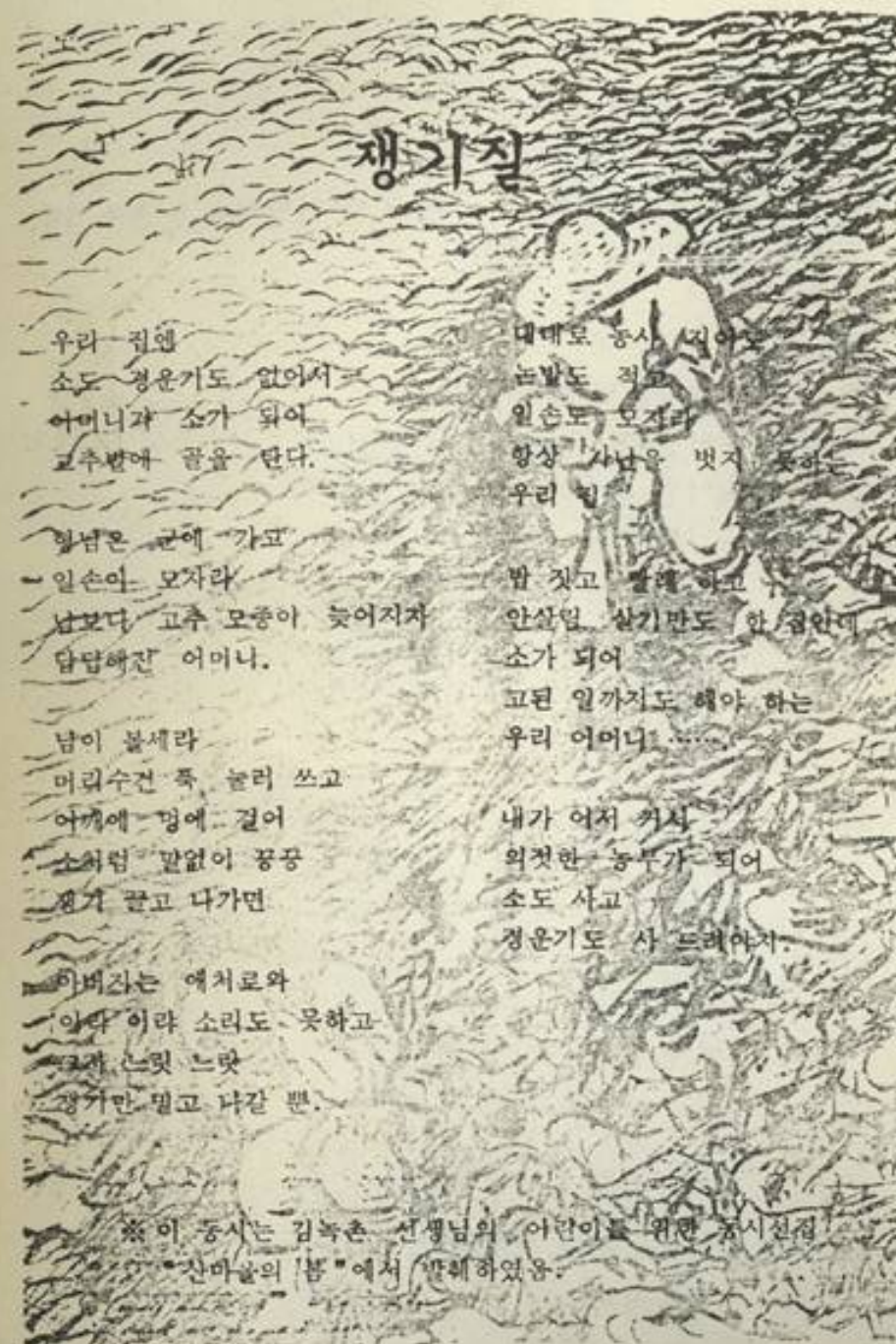
구 분	계	근로자	공무직원	지역주민	의료보호 (인구의 11%)
대상인구(천명)	42,941	16,182	4,433	17,536	4,790
소요재원(억)	15,887	7,154	2,197	5,671	865
급여비	14,384	6,582	2,065	4,872	865
운영비	1,503	572	132	799	-
운영비비율	10.4%	8.7%	6.5%	16.3%	-

(보건사회부 '86.8)

<도표 2>

	조 합 주 의	통 합 주 의
종 류	직장조합, 공무원, 교직원조합, 지역조합, 직종조합	전국민 전국 일원화
대 상 인 구	42,941 억	42,941 억
의료보호자	4,790 (천명)	4,790 (천명)
소요재원	15,887 억	15,319 억
급여비	14,384 억	14,384 억
운영비	1,503 억	935 억
운영비비율	10.4%	6.5%
소득에 대한 비율	직장, 직종, 지역에 따라 불공평	전국민의 총소득에 대해 1.6%
정부재정	막대한 정부재정 필요	정부재정의존 극소화
장 단 점	(장) 준비 간편 (단) 국민연대감 강화 • 소득재분배기능 거의 없음 • 관리운영비 증대 • 정부재정부담 많음	(장) 관리운영비 절감 국민연대감 조성 소득재분배 가능 최저 의료보장 가능 정부재정부담 극소화 (단) 준비가 복잡

농촌활동의 길잡이(부녀반)



생기질

우리 집엔
소도 정운기도 없어서
어머니가 소가 되어
고추밭에 골을 탄다.

일남은 군에 가고
일손이 모자라
남보다 고추 모종이 늦어지자
답답해진 어머니.

남이 불세라
머리수건 꼭 눌러 쓰고
어깨에 멍에 걸어
소처럼 말없이 땀
땀 흘리고 나가면

이별하는 여자로와
아라 아라 소리도 못하고
눈물 눈물
장거만 땀과 나갈 뿐.

대대로 농사 지어온
논밭도 적고
일손도 모자라
항상 사남을 빗지 못하
우리 힘

밥 짓고 팔레 하고
안살림 살기만도 한 집안데
소가 되어
고된 일까지도 해야 하는
우리 어머니

내가 어찌 커서
외로운 농부가 되어
소도 사고
정운기도 사 드려야지.

※ 이 중시는 김복춘 선생님의 어린이를 위한 동시집
"산마루의 봄"에서 발췌하였음.

연세대학교 총어학생회.

농촌 여성의 현실.

1. 농촌 여성의 삶.

- (1) 여성문제란 무엇인가.
- (2) 농촌 여성의 현실. - 3종고에 시달리는 농촌부녀들.
- (3) 농촌 여성운동 개관.

2. 부녀반 활동에 대한 제언.

- (1) 부녀반 활동의 목적과 방향.
- (2) 부녀반 활동준비를 위한 조사.
- (3) 부녀반 활동 계획.
- (4) 부녀반 활동 프로그램.
 - . 다과회.
 - . 토론회.
 - . 문화발표회.
 - . 호별방문.
 - . 교양교육.
- (5) 함께 부르는 노래.
- (6) 건강상식.
- (7) 마당극.
- (8) 여성농민의 나아갈 길.
 - . 소값 피해보상 사례.
 - . 분회모임 잘 되세요?
 - . 농촌운동의 현장을 찾아서.
- (9) 알아둬시다!
 - . 추곡 수매가에 할 말 있다.
 - .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1. 농촌 여성의 삶.

우리는 땅을 박차고 일어서는 당당한 농민이다.

아아 다시는 안 속는다고
정말 두번다시 안 속는다고
굴뚝 번도 더 맹세하면서도
언제나 자유당만 찍었고
죽어라 공화당만 찍었던
나는 어리석은 농민이다
.....중략.....
쌀 한가마 팔아서 보리 한 가마 팔아서
벼락부자 되겠다는 것이 아니다
더 주지도 말고
덜 주지도 말고
품값 비료값 농약값 제하고
생산원가만이라도
계산해 달라는 말이다
글 많이 한 서울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채일 먼저 이빨부터 닦는다지만
우리들은 숫돌부터 찾아
낮을 가는 농민이다
이제 우리들의 소원은
종년이 아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던
농민이 아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농민이 아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던
농민이 아니다
이제 우리들은 저 땅을 박차고 일어서는
당당한 농민이다
이제 우리들은 어두운 밤을 깨고
신새벽을 기다리는 농민이다

〈홍익선 시 '농민의 소원' 중에서〉



(1) 여성문제란 무엇인가.

한 사회조직 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에 관계되는 문제가 바로 여성문제의 핵심이다. 어떻게 하면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또 모든 방면에서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할 수 있을까, 그 이하에 결과적으로 완전하고도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인류 사회의 유능한 일원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 등이 중심문제이다. 이 문제는 인류 사회가 억압과 착취, 공립과 비참에서 벗어나 개인과 사회 모두의 건강을 되찾으려면 어떤 형태의 제도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여성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그로부터 비롯된 악을 제거하는 과정속에서만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지위가 지난 세월동안 점차 개선되어 왔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무지와 몰이해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더 격렬해져 가는 여성운동에 편견을 갖게되며 심지어는 여성문제는 기존의 가치조차 없는 문제라고 일축해 버리면서 지금까지 여성이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은 바로 그것이 여성의 천성에 속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앞으로는 영원히 그 상태로 계속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야말로 자신의 웅중한 선입견에서 한발자욱도 벗어나줄 모르는 수탈으로서 이들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살아가는 윤택미 족속들이다. 만일 그 어둠속으로 한줄기 빛으로 들어와 미치게 된다면 이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것이다.

수 많은 여성들이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 남성에 대한 사회적 집단적 증속에서 비롯된 고통과 경제적 증속으로 인한 고통을 모두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의 경우 남편인 프롤레타리아 남성들과 함께 겪는 경제적 고통이 이 두 말 할 수 없이 심각하다.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고통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성 문제이고 여성은 지금까지 고통받아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 어락을 막론하고 문화발전 과정속에서 남성들보다 부터의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온 성적 존재로서의 모든 여성들이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타파하기위해 기존의 법률과 사회 및 국가 질서를 개혁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됨은 당연한 귀결이다.

(2) 농촌 여성의 현실 - 3종고에 시달리는 농촌 부녀들

최근 여성 농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여성 농민 문제가 심각한 우리의 농촌문제를 응축해서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기때문이다.

‘대외 의존적 수출 산업 전략’ → 농촌의 빈곤화 → 이농 → 농업 노동력 부족 → 여성의 농업 참여, 이것이 바로 농촌과 또 농촌 여성이 지난 60년대 이래 겪어온 상황의 진말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런 속에서 농촌 여성들은 농가의 주부로서 농업 노동자로서 이중 삼중의 짐을 지고서 가족과 농업의 붕괴를 마고 있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여성화에 따라 농업 노동에 있어서 여성 노동의 강도와 비중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봉건 사회의 유제로 인해 향상되고 있지 못하다. 과다한 노동, 가사 노동의 압박, 자녀 교육 문제, 봉건 유제 문제 (성차별, 피임, 고부간의 갈등, 가정내 의사 결정권 문제) 등이 여성농민의 주요한 문제이나 여성 농민들은 매스컴등을 통한 도시 문화의 동경과 현실인식의 회피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외와 같은 문제들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한다.

농촌 여성의 농업노동에 있어서, 그녀의 노동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고 엄청난 농사일에 더하여 가사노동은 가장 성별 역할분업이 잘 되어 여성이 전담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가사노동과 소비권이나 가사결정권과는 구분이 되고 있다. 중요한 사항의 결정시 남편이 단독으로 하거나 남편의 결정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시부모의 결정권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화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외부와의 거래나 마을의 중요문제를 결정짓는 부락회의 등에는 주로 남성들만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별분업은 남녀간의 상대적 지위격차가 점차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중한 노동부담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는 농촌 여성들로 하여금 별다른 문화활동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을뿐 아니라 문화시설의 도시편차는 농민의 문화적 소외를 낳고 있다. 사적적이고 향락적인 도시문화와 현실 사이의 괴리속에서 농촌 여성은 깊은 소외감 상대적 빈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며, 매체를 통한 외래문화, 도시문화의 침식에 의해 마을 사람들간의 대화단절, 가족 상호간의 대화단절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한 농촌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의료상대이다. 의료시설의 심한 도시편차는 병이나도 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할뿐 아니라 낮은 소득수준에서 모든 경제적 장벽은 병이나도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 여성의 질병은 농업노동의 과로, 산후조리의 불충분, 피임후유증, 농약사용에서 오는 질병 등 만성적 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있어서 ‘빈곤’때문에 선택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터길이 박힌 남아선호사상은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딸은 공장에 보내야 한다는 극도의 성차별이 대물토기에 바치게 된다. 이로써 여자들은 교육의 대열에서 도태되고 그로부터 사회적 무능력을 초래하게 되며 영원히 남자에게 예속되는 존재로 전락되면서 여성 스스로도 성적 억압의 부당성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조차 못하게 된다. 또한 농촌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중한 노동은 농촌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교육에 커다란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결국 농촌사회 내부의 고질적 빈곤과 성적 불평등은 농촌 여성교육의 커다란 장애인 것이다.

농촌 여성들, 그녀들의 슬프고 막막했던 시련중 몇가지를 구체적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큰 머느리가 딸들을 낳는채 도망쳐 버리고 아들은 입도 안하고 발광해서 지낼때.
- 애들 공부 못 가르친 것 생각하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돈이 붙을까 하면 남편이 막 노동판에서 마쳐서 다 털어 먹었다. 시골은 살곳이 못된다. 자식들 못 할 짓만 서킨다.
- 자식들은 국민학교 밖에 못 가르쳤다는데, 자식들이 월급을 조금 더 주는 공장으로 옮기려 하니 중학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니, 자식들이 촌에 한번씩 내려와서는 왜 날 중학교도 못 보내느냐, 나도 아버지따 죽어 버리고 싶다고 울고 난리를 부리는데, 그리고 가만 가슴이 미어져.....
- 걸핏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달려들어 때릴 때.

(3) 농촌 여성운동 개관.

여성농민들이 지도력이 개발되고 조직화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갈 여성농민운동 단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 독자적인 여성농민운동 단체로는 ‘카톨릭 농촌 여성회’가 유일한 조직이며, 이 밖에 ‘카톨릭

농민회 조직내에 여성부가 한 부서로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7. 카톨릭 농촌 여성회.

카톨릭 농촌 여성회는 농촌 여성의 권익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1977년 1월, 농촌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 여성들이 조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의 활동은 교육과 이를 통한 조직화가 가장 기초적이다. 교육내용은 여성 생활과 연관된 고양, 계몽적인 것에서부터 점차 농민문제와 본질인식에 까지 광범위한 것이다.

부락내의 여성조직들의 활동은 공동협동 활동과 권익활동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공동협동 활동은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을 공동으로 함으로서 가난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인 방법이나 대응하면서 동시에 회원간에 협동심과 단결심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권익활동은 부락내의 관료적 횡포와 부정부패 제거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주로 부녀회 활동의 민주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성농민들만으로 구성된 이러한 조직체계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에 여성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지도력의 개발에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8. 카톨릭 농민회 부녀부.

카톨릭 농촌 여성회가 여성만의 운동체인데 비해 카톨릭 농민회는 본부(사무국)내에 부녀부를 두어서 여성농민의 지도력 개발에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가농'내에 부녀부가 만들어진 것은 가농이 창설된지 10년이 지난 1977년 말이었다.

부녀부의 활동은 크게 교육활동과 현장활동으로 나뉘어지며, 이것은 카톨릭 농촌 여성회의 활동과 유사하다.

가농의 여성회원들은 남자 농민들과 함께 교육받기도 하고, 함께 활동함으로써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활동에서도 훨씬 용이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칫 남성에게 의존적이 되기 쉽고 운동에서도 보조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2. 부녀반 활동에 대한 제언.

지금까지 농촌 여성의 현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중 삼중의 짐을 지고 현재 외기에 처한 농촌을, 마지막 보루로서 지켜내고 있는 이 땅의 민중여성들, 그러나 거대한 외부적



힘을 개인의 노력과 희생만으로 막고 나서기에는 너무 억부족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농민간 굳건한 결속을 통하여 공동대처해 나가야 한다.

지금도 흠바람 부는 노동의 무게로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농촌여성들에게로, 가자. 학우여. 이 땅의 진정 아름다운 어머니들에게로, 진정 주인되는 여성들에게로!

(1) 부녀반 활동의 목표.

부녀반은 그 전망을 설정하거나 운동성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여기진다. 대개의 마을에 부녀회가 존재하거나 부녀회장이 있지만 대부분 관청과 밀착된 어용이거나 형식적인 경우일 때가 많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다가 선거때가 되면 활발하게 움직이며 마을에 큰일이 있을 때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반활동에 있어 부녀회가 큰일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부녀반 활동의 목표는 대화활동을 통해 농촌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과 단서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부녀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자발적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실무로써 부녀가를 조직하려고 하기보다는 부녀들의 특성, 역량에 맞는 마을내의 문제들이 확실히 제기되고 이러한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을 마을 부녀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녀반원은 농촌문제와 여성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농민운동에서의 부녀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농활 가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마을의 특수한 문제가 무엇이며, 부녀들이 어떠한 해결전망을 가질 수 있는지 대해서 사전에 고민, 연구해가는 자세가 도움이 될 것이다.



(2) 부녀반 활동 준비를 위한 조사.

조사내용의 성격상 인단적 유대관계가 강화되지 않았을 경우, 조사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므로 파악되지 않은 것은 그리고 성격상 파악하기 힘든 것은 후속활동, 본활동등에서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 조사내용은 - 부녀회의 존재여부 및 그 활동상황,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부녀회 활동 내용
 - 부녀 노동력의 비중과 주로 많은 연령대
 - 부녀들의 학력수준(글자판독 여부와 경제적 지위와 부녀노동형태, 흥미있게 보는 프로그램)
 - 부녀들이 원하는 농활의 내용
 - 부녀들이 생각하는 부녀들의 문제와 마을문제, 농촌문제, 그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
 - 계조직 및 내용

(3) 부녀반 활동 계획

\$ 방법론: 초기엔 로빌 방문을 통해 농촌 부녀들의 생각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및 자체의 모임을 통해 농촌문제와 농촌여성문제를 논의하며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부녀모임에서는 민요, 춤 등이 도입되어 모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 부근이 함께모이는 부녀 모임이나 가정의 같이 있는 저녁시간의 호별방문은 부녀들의 진술하고 활발한 의견제시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부녀모임이나 호별방문을 계획해야 한다.

부녀모임은 연령별 모임을 계획할 수 있는데 연령별 모임에서는 특히 30대~40대 아주머니들에 대해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령별 모임에서는 연령별로 특징한 주제가 설정되어야 한다. (예: 국민학생이 있는 어머니) 그러나 이러한 연령별 모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 부녀모임에선 전체적인 마을문제 파악이 쉽지는 않지만 마을 부녀들이 직면한 마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접근을 시도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속에서 추후의 부녀모임은 과이 모색되어야 한다.

§ 세부 활동 계획 : 부녀회장방문, 호별방문을 통해 일반적 농촌문제, 농촌 여성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마을의 구체적인 농촌여성문제를 파악한 후에 갖도록 한다. 호별 방문시의 대화, 주제등은 사전에 활동대원들 사이에서 합의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경험이 없는 대원들에는 호별방문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수가 많으므로 이것을 본반실무자들은 명심하여 같이 합의해 나가고 그 의미를 밝히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부녀들과의 대화시 앞으로 부녀모임에서의 문제해결 전망을 위해서 마을 부녀들이 결정권을 지닌 경제활동 영역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부녀모임은 마을 전체 부녀들의 공통관심사를 함께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이 때에는 사전에 준비한 민요, 춤등의 발표를 통해 모임의 부드러운 분위기가 되도록 한다. 그러나 대개의 부녀모임에서 부녀자들은 계속 오락적 분위기를 원하고, 분위기 자체가 산만해 지기 쉬우므로 활동대원은 진행은 엄격히 유의해야 한다. 이 부녀모임은 해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며 애용의 집적심화와 구체성 획득을 위해 3-4차례가 필요 있다. 본반활동 후에는 본반별 모임시간을 통해 평가회를 갖도록 한다. 평가회는 부녀반 목표가 본반활동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장이다. 이때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보다 구체적인 일정 계획과 목표를 세울 수 있다. 평가회에서는 활동대원간의 민주적 토의를 거쳐 본반활동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이후의 본반활동에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4) 부녀반 활동 프로그램.

1. 다과회 - 부녀들의 오랜 가사노동, 시간을 고려하여 실제로 9시 이후로 시간을 잡는 것이 좋으며 부녀들의 공통관심사를 사전에 파악하여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 다과회 분위기에 맞는 가볍고 명랑한 분위기를 유도하도록 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 사전에 준비해간 민요 3-4곡 정도를 가르쳐주는 것도 좋다. (예: 진주 난봉가, 비타령, 사발가등)
2. 토론회 - 다과회 보다 좀더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마을내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부녀간 의논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의 지나치게 산만해지는 것은 과감히 잘라버리고 토론을 집중적으로 유도해나가도록 한다.
3. 문화발표회 - 우리 전통문화, 노동하고 난 뒤의 여가를 우리의 춤과 가락으로 즐겼던 우리 전통놀이 사라지고 도시적, 소비향락적 문화가 우리의 농촌을 침식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잊혀져가는 노동요와 우리의 멋스러운 춤을 보여줌으로서 우리 놀이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보급을 꾀한다. 농활을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전 농활대원의 문화선진대화를 필요로 한다.

4. 호별방문 - 호별방문은 매일 저녁에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봄반반활동에 있어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집한다. 본 활동기간을 9일 정도로 잡을 때 적절하게 토론회, 다과회, 문화발표회를 배치하고 그 이외의 것은 모두 호별방문이 되는 데 처음 활동동안은 구역의 모든 집을 가볍게 한번씩 방문하여 인사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이후는 토론회나 다과회에서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의 담소를 하도록 하며 많은 부녀들이 호감을 느끼면서 토론회, 다과회, 발표회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5. 교양교육 - 여기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나 지역 부녀들의 생활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다. 가령(장구, 북) 가르치기, 민요 가르치기, 성교육(임신과 육아, 사춘기 자녀의 성교육등), 등궁예 등등. 이 부분은 각 준비주체의 역량에 맞게 하되 실제로 많은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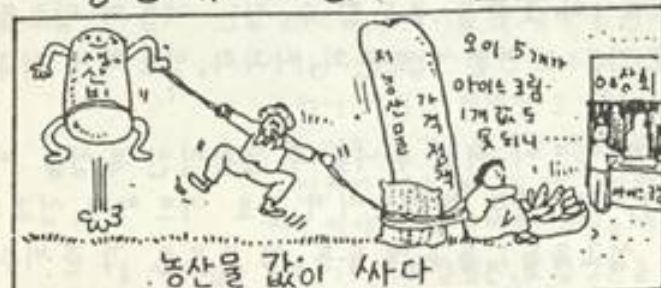
우리 엄마

잠든 우리 머리맡에
아침상 차려 두고
엄마는 오늘도 들일 가셨다.

겨우내 머리로는 나무를 이고
봄부터 가을까지 들일을 하는
거친 손
까만 얼굴
남자 같은 우리 엄마



기영



이별의 부산정거장

농사지어 빚도 못갚네
앞으로도 갚을 수 없네
가져 가세요 다 가져가요
줄 것도 하나 없어요
한 많은 촌놈살이 설움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땅때지기여
경상도 농투산이여
딸자식이 슬피우네
이별의 부산정거장

원곡 : 이별의 부산정거장

울려고 동자했든가

울려고 양파했든가 웃울려고 고추했든가
무안들 황토길에 왕창 썩는 양파신세
그대와 둘이서 양파를 심든 그날은
지금은 어디로 갔나 부채만 늘어난다

울려고 마늘했든가 웃울려고 참깨했든가
울어본다고 다시 올리랴 농사꾼의 첫순정
그대와 둘이서 참깨를 심든 그날도
지금은 어디로 갔나 황소야 울어라

울려고 돼지쳤든가 웃울려고 소쳤든가
비린 내 나는 도살장에 왕창 썩는 고기냄새
그대와 둘이서 우리를 치던 그날은
지금은 어디로 갔나 돼지야 말해다오

원곡 : 선창

식구생각

분홍빛 새털구름 하하하 고운데
학교 나간 올 오빠 송아지 타고 저기 오네
읍내 나가신 아버는 왜 안오실까
엄마는 문만 삐끗 열고
밥지울라 내다 보실라

미류나무 따라서 곧게 난 신작로 길
시커먼 자동차가 흙먼지 날리고 달려가네
군인가신 오빠는 몸성하신지
아빠는 셋다 말고
먼산만 바라보시네

이웃집 훈이네는 무슨 잔치 벌렸나
서울서 학교 땡긴다는 큰 언니 오면 단가 뭐
돈 벌러 간 올 언니는 무얼하는지
엄마는 팬히 눈물바람
아빠는 팬히 헛기침만

겨울가고 봄이 오면 나도 학교 간다는데
송아지는 왜 판담 그까짓 학교 대순가 뭐
들판엔 꼬마애들 놀고 있다는데
나도 나가서 뛰어놀까
구구단이나 외울까 말까

농민마음

고추값 채소값이
떨어지는 가을밤에
그 어디서 들려오나
텔레비전 떠드는 소리
순박하게 살아가는 농민가슴에
어이해서 너만은 좋다고 지껄이나
그마음 서러우면
고추밭에 불태워서
농민마음 멀리멀리
띄워보내 주려므나

원곡 : 오동잎

옹헤야

봄이 되면 옹헤야 가을이면 옹헤야
 멀칭씨워 옹헤야 높은 하늘 옹헤야
 씨앗뿌려 옹헤야 낫을 들고 옹헤야
 싹이 난다 옹헤야 추수하세 옹헤야
 담배씨도 옹헤야 고추따고 옹헤야
 고추씨도 옹헤야 사과따고 옹헤야
 신품종도 옹헤야 콩겨두고 옹헤야
 심어보세 옹헤야 벼를 베세 옹헤야
 어절씨구 옹헤야 어절씨구 옹헤야
 잘도 한다 옹헤야 잘도 한다 옹헤야

여름이면 옹헤야 겨울이면 옹헤야
 퇴약벌에 옹헤야 수매장에 옹헤야
 농약뿌려 옹헤야 1등 2등 옹헤야
 김을 맨다 옹헤야 수매하세 옹헤야
 고추밭도 옹헤야 눈이 오면 옹헤야
 담배밭도 옹헤야 사랑방에 옹헤야
 콩밭도 옹헤야 땡땡 장땡 옹헤야
 김을 매세 옹헤야 꼬아댄다 옹헤야
 어절씨구 옹헤야 어절씨구 옹헤야
 잘도 한다 옹헤야 잘도 한다 옹헤야

우리 마을 옹헤야
 정화위원 옹헤야
 화투치다 옹헤야
 논밭날려 옹헤야
 그렇지만 옹헤야
 화투짝은 옹헤야
 못버리네 옹헤야
 어절씨구 옹헤야
 잘도 한다 옹헤야

조합직원 옹헤야
 건물건들 옹헤야
 수매장에 옹헤야
 나타났네 옹헤야
 영농자금 옹헤야
 일반대출 옹헤야
 빚갚아라 옹헤야
 못갚겠네 옹헤야
 어절씨구 옹헤야
 잘도 한다 옹헤야

면직원이 옹헤야
 이장님들 옹헤야
 만나드니 옹헤야
 소근소근 옹헤야
 모관해라 옹헤야

사과는 말이 없네

경상도에 과수원길 고생문이 활짝 폈네
 하얀꽃 잎파리가 실바람에 날리네
 사과는 말이 없네 농약냄새만 솔솔

(후렴) 농민들 이마에는 주름살만 늘어가고
 한해농사 지어봤자 빚더미만 쌓여가네

전라도에 한강찰벼 고생문이 활짝 폈네
 심을 때는 권장하고 수매때는 외면하네
 찰벼는 말이 없네 허수아비만 덜덜덜

여름이면 보리동결 겨울이면 쌀값동결
 벼한가마 팔아봤자 신 한켠레 못사네
 농민은 말이 없네 한숨소리만 푸우푹

원곡 : 과수원 길

□ 함께 노래를



이어도사나

후렴 : 이어도 사나 아..... 이어도 사나 으샤으샤

1. 물로야 땡땡..... 돌아진 섬에.....
 먹으나 굶으나 아..... 물질을 하여 으샤으샤
2. 우리 배는..... 소냐배요.....
 남의 배는 아..... 썩대냐배라 으샤으샤
3. 우리 어명..... 날 날 적에.....
 어느 바당 아..... 미역국 먹영 으샤으샤
4. 성님 성님..... 사촌 성님.....
 시집 살이가 아... 어떻게디깁 으샤으샤
5. 한푼 두푼..... 모은 돈도.....
 남군님 술값에 아...모자라간다. 으샤으샤
6. 이어도 물은..... 저승물이요.....
 이어도 문은 아..... 저승문이라 으샤으샤



동당에 타령

후렴 : 동당딩 동당딩 덩기동당에 동당딩
동당에디여 동당에디여 덩기동당에 동당딩

1. 솜버신 솜버신 외양목에 솜버신
씨엄씨 줄라고 해다가 왔더니
어느나년이 다돌러갔네 덩기동당에 동당딩
2. 솜버신 솜버신 외양목에 솜버신
신을줄 모르면 남이나 주지
신었다 벗었다 부시집 만든다 덩기동당에 동당딩
3. 날씨가 좋아서 빨래를 갔더니만
모진놈 만나서 돌베개 베었네 덩기동당에 동당딩

백석은 농민땅

1.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동경 백이십칠 북위 삼십육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백석은 우리땅!
2. 전주시 북전주 경운기로 한나절
대둔산 기슭의 농민의 명당
먹방이는 다섯가구 백석은 열여섯
구제리는 농민땅!
3. 도라지 고사리 고추 버섯 활나무
산채국 소태국 농민의 명당
초기신앙 간직하고 농민애로 뭉쳐진
구제리는 농민땅! 농민땅!

「독도는 우리땅」 노래의 가사를 백석의 협동분회
회원들이 바꿔 부르는 노래

농민오동동

1. 돼지키워 잘 산다던 오동동이나
소 키우면 잘 산다던 오동동이나
아니요, 아니요, 소값이 오르면 외국소수입
오동동 오동동 그침이 없어
소값피해 보상하라 오동동이나
2. 소 돼지값 통값되어 께깁맥이나
농민이 자살해서 께깁맥이나
아니요, 아니요 억울하게 죽은귀신 외치는 소리
껴깁맥 께깁맥 그침이 없어
농민들아 일어서라 께깁맥이나
「오동동 타령」 노래곡에 가사를 바꿔 우리 농민들이
즐거 부르는 노래

○건강상식

○ 독충에 물렸을 때

참깨나 들깨를 씹어서 (침을 섞어서) 물린 부위에 바르면 낫는다. 참깨나 들깨는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흰머리가 생기는 것도 예방한다.

○ 변비예방

아침 저녁 잠자리에서 아랫배를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뺀 가운데 세 손가락으로 지압을 한다. 몇번이고 되풀이 매일 계속하고 아침에는 생수를 (끓이지 않은 찬물) 한 잔씩 마시면 효과가 있다.

○ 바르게 먹는 음식은 건강에도 좋다

음식은 잘 먹으면 약이 되고 잘 못 먹으면 독이 된다. 육류보다는 채소가 몸에 좋다. 육류보다 채소가 밥상에 많이 오르는 우리 농민들에게야 육류에 관해서는 말 할 필요가 없겠다. 채소는 삶아 먹기 보다 생으로 먹는 것이 몸에 좋다. 또한 쌀도 백미 보다는 현미가 좋고 더우기 보리, 콩, 팥, 수수등으로 잡곡밥을 지어먹는 것과 미역, 다시마등 해조류를 생야채와 함께 두단 정도만 계속해서 먹어도 피가 맑아지고, 6개월 이상 계속 해서 먹게되면 체질이 바뀌어져 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머리비듬 치료는 물론 질병예방에도 매우 좋다.

○ 감기에 코가 막혔을때

아기가 감기에 걸렸다가 해서 코가 막히게 되면 젖을 빨지 못하고 보채는 수가 많다.

아기의 코가 막힐 징조가 보이면 미리 마늘을 몇쪽만 잘게 썰어서 형질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넣고 이것을 아기의 목에 걸어주면 마늘의 자극적인 냄새로 코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또 막힌 코도 트이게 한다.

아기감기 예방법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감기에 조심해야 한다.

어머니들은 어린아이들의 감기로 고심하는 경우가 많다. 감기를 예방하고 또 감기에 걸리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 평소에 옷을 얇게 입히는 습관을 길러주어 피부를 단련시킨다.

둘째 : 하루에 두 세번씩 방문을 활짝 열어 방안 공기를 맑게 한다.

셋째 : 하루 한번쯤 애기 옷을 벗겨 잠시 (약 30 초~1 분간)

풍욕 (바람피기) 을 시킨다.

넷째 : 음식을 골고루 먹는 습관을 들인다. 특히 채소와 과일을 익혀 먹는것 보다 생으로 먹이되 젓먹이와 어린 아이들은 즙을 내어 먹이면 좋다.

국민학생 저축이자를 떼어먹다니!

...농촌에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 궁리해보고 노력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해봤자 되지도 않을텐데”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던져버리고 나와 이웃을 위해 한 걸음씩 내딛어 봅시다. 이글은 어느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여성농민교육참가자들이 사례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마당극으로 꾸민 것입니다.

출연: 필요에 따라 한 사람이 두 세가지 배역을 맡을 수도 있다.

자모회장

자모회원 1, 2, 3

국민학교 교장

농협 조합장, 농협 직원

숙이, 철수

숙이엄마, 아빠, 철수엄마

장면 1 : 숙이네 집 마당

숙이 : (책가방을 메고 징징 울면서 조른다) 양양 / 지금 안 주면 내 학교 못간다.

숙이엄마 : (타이르면서) 아이고, 갑자기 없는 돈이 어디서 생기노, 울면 나오나. 내일 주게 그냥 가라.

숙이 : 안돼 / 안돼 / 지금 안 가져 가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단말야.
(땅바닥에 주저앉아 운다.)

숙이아빠 : 요년이 어디서 아침부터 우노. 가기 싫으면 가지마라. 집에서 농사일 거들만 나도 더 좋다.

숙이엄마 : 아이고 뭘 말을 그래 하니겨. 있어봐라 철수네 집에 가서 좀 꺾보자. (반대편에 있는 철수엄마께 다가가서)

숙이엄마 : 아침 먹었니겨? 저 돈 있으면 삼백원만 꺾주소. 저금 달라는데.....

철수엄마 : 아이고, 말마소. 우리도 아침에 난리 났니다. 오늘까지 비료값 낼 돈도 없는 판에 철수란 놈이 저금 달라는데 어디 있어야지요. 좀 때렸지만 울면서 갔니다.

숙이엄마 : (한숨 쉬며) 빚더미가 태산 같은 살림살이에 저금할 돈이 어딴다고, 학교도 참 사정 모르지.

철수엄마 : 글썽 말이시더. 사채 값을라고 농협빚 내고 농협연체 막을라고 사채쓰는 형편에. 세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장면 2 : 마을어귀

자모 1 : 보소, 영옥이 엄마 / 어디 갔다오니겨? 참말로 물어볼께 있습니다.

자모회장 : 뭔데요?

자모 1 : 우리 아들 학교에서 하는 저금 안 있니겨. 우리 농협빚 내면 이자 땀에 허리 뿌러지는데, 아들 저금에 지들은 얼마나 이자 쳐주는가 싶어 보니까 아. 글썽 한푼도 안붙었네요.

자모회장 : 그래요? 난 몰랐는데 알아보시더. 마침 저기 숙이엄마가 오는데 물어보자. (다가가서 이야기 한다.)

자모 2 : 통장이자? 그런거 못봤는데.

자모회장 : 보통일이 아니네요. 우리 좀 더 확인 해 보시더.

장면 3 : 학교 교장실

교장 : 이자가 안 붙었다고요? 아-난 또 뭐라고. 농협일이 워낙 바빠가지고 그랬는 모양인데, 졸업할 때 땀 다 쳐주니까 걱정말고 돌아가시오.

자모회장 : 교장 선생님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 엄마들이 알아보니까 통장도 보통에 금통장하고 자립에탁금통장하고 나누어져 있다는데 그건 어떤거래요? 이자 차이가 역수로 나옴데. 하기사 이자가 어디에도 안붙었으니까 땀 마찬가지지만.

교장 : 그런게 아이고, 좌우간 우리가 다 알아서 할테니까 조용하게 돌아가 주십시오. 엄마들이 자꾸 학교 와서 이래미들만 애들 교육상에도 안 좋습니다.

자모회장 : 우리는 학부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출된 입장이라 학생 전체한테 관련된 문제는 자모회에서 일단 의논을 한번 해 봐야겠니다. 그때 교장선생님께서도 참석해 주시소.

교장 : 아, 그러지말고 제발 부탁입니다만.....

장면 4 : 자모회

자모회장 : (그동안 경과보고) 이상이 그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궁금하신거 있니겨?

자모 1 : 세상에 이자 안 붙는 통장이 어딴노?

자모 2 : 문제는 문젠데. 어찌 풀어야 되노. 학교나 교장선생님 명예도 있고, 조용하게 처리했으면 싶은데요.

자모 3 : 아이고 무슨 소리겨? 농협하고 학교하고 분명히 무슨 수작이 있어서 한짓인데 조용히 해결되니겨? 날날이 밝혀서 우리건 우리가 찾아야지 / 안 그래요?

자모회장 : 네. 두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조용히 처리하자는 것하고, 문제화 시키자는 것, 또 말씀해 주세요.

자모 4 : 혹시 이런 일이 우리 학교 말고 딴 학교에도 있는 일인지 알아보시더. 그냥 덮어둘 수는 없으니까.

자모 1 : 그럼 이래시더. 우리 엄마들이 농협에 가서 진상을 알아보고 딴 학교 엄마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선생님들 중에도 불만있으마 알아보고.

자모들 : 그게 좋겠네요.

장면 5 : 농협

직원 : 아이고 필일로 이래 메서리로 물러 왔니꺼?

자모회장 : 우린 셋별국민학교 자모회인데 조합장님 만나러 왔니더. 비키소.

직원 : 조합장님하고 약속 돼있니꺼? 안 그러면 워낙 바쁘셔서 안되는데.

자모 3 : 뭐라고요. 우린 조합장 만나기 전에 절대 못 돌아 가니더. 그런 줄 아소.

자모 4 : 학교 저금한 돈 이자가 2년씩이나 안붙어서 알아보러 왔니더. 시간 끝면 서로가 안좋아요.

직원 : (갑자기 급실대며) 아 그일로 오셨습니까? 진작 말씀하시지. 자 조합장실로 올라가 보십시오.

조합장 : (거만한 말투로) 아, 그일 말씀인가요? 그거라면 별거 아니니다. 업무가 워낙 바빠서 통장에 못올렸습니더. 원장에는 다 올라가 있으니 걱정마십시오.

자모회장 : 네, 다행이군요. 그렇다면 이왕 왔으니 원장을 좀 보여주소.

조합장 : (위협조로) 허허 / 그렇게 농협을 못 믿어 주시면 어떻게 농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거, 코물은 돈 이자 쳐봐야 우리 부자 안됩니다. (아침조로) 자자, 셋별국민학교에는 특별히 섬섬갈게 해드릴테니 가보십시오.

자모회장 : 그렇게는 안되겠네요. 농협 상부기관에 질의서를 내서 알아봐야겠니더. 다른 학교도 조사해 보고요.

장면 6 : 농협 앞 대회장

(관중속에서도 동원해서 와글거리도록 한다. 현수막, 종이확성기, 피켓준비)

자모회장 : 이 자리에 많이 모여주신 ○○군 자모, 교사 여러분 / 지금부터 ○○군 학교저축 이자횡령 사건 보고대회를 갖겠습니다.

셋별국민학교 자모회에서는 학교저축통장에 2년동안 이자가 한푼도 오르지 않은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학교, 농협, 다른 학교 경우도 알아보았어요. 농협 상부기관에 질의서를 내서 알아보니까 저축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3개월, 6개월마다 이자를 올린다는데 그렇다면 ○○군 농협은 우리 아이들 코물은 돈을 떼어먹은게 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모 3 :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니꺼? 당장 모가지를 찢라 혼썰을 내시더.

자모 1 : 그것도 좋지만 흥분할게 아니라 조합장을 이 자리에 불러 사과를 받으시더. 안그러면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자모 4 : 그간 우리 엄마도 잘못된게 많아요. 애들 교육에 그렇게 무심했으니 이 기회에 우리 자모회가 적극적으로 애들 학교교육에 참여하시더.

자모회장 : 예, 그러면 우선 셋별면 조합장 얘기부터 먼저 듣시더.

조합장 : 긴 말 할 것없이 잘못했니더.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어 그런 짓을 했어요. 한번만 봐주시면 손해가 안 가시도록 이자를 올려드리겠습니더.

자모들 : (구호를 외친다.)

“코물은 돈 떼어먹는 조합장은 물러가라” “부모, 교사 단결하여 참된 교육 심어주자”

자모회장 : 일단 우리는 이자를 찾게 되어 이번 일에서는 이겼습니더. 그 이상의 조치는 농협 상부기관과 교육위원회에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자모 3 : 또한 이 기회에 강제저축을 없애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강력히 촉구합시다. 어떠신지요?

자모들 : 조-오습니더.

자모 1 : 또 한가지 이 사실을 다른 지역에도 알려져 다시는 이런 부정이 없도록 합시다.

(모두 현수막 피켓 흔들며 노래)

○ 생활의 지혜

○ 계란껍질을 이용하세요

- 흰쌀래를 삶은 때 계란껍질을 가재에 싸서 솥밑에 깔고 쌀래를 삶으면 쌀래가 희어집니다.
- 목이 긴 병은 잘 씻어지지 않습니다. 계란껍질을 잘게 부서뜨려 비눗물과 섞어서 흔들이 주면 병밑이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 김치를 빨리 시지않게 하려면 계란껍질을 독밑에 깔고 김치를 담가보세요.
- 음식이 탄 냄비는 계란껍질로 닦아 보세요. 신통하게 벗겨집니다.

○ 아기들의 기저귀를 보드랍게

기저귀는 아무리 잘 빨아도 암모니아 합성세제가 남아있어 아기들의 보드라운 피부를 자극하죠. 기저귀를 마지막 행굴 때 물에 식초를 약간 넣으면 암모니아나 세제가 중화될 뿐 아니라 때가 깨끗이 빠집니다.

여성 농민의 나아갈 길

1. 지난해 농민운동의 평가

지난해 85년도는 전국 10개도 20여 시 군에서 2만여명의 농민들이 "외국농축산물 수입반대 및 소값폭락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몰이 싸움이 하늘을 찌를듯 뜨거운 열기속에서 일어났다. 이는 그동안 개방경제체제라는 허울좋은 이름아래 외국농축산물을 마구잡이로 들여와 농민과 노동자들의 목을 조르고, 국내외 독점자본(재벌가)들을 살찌우는 정책을 계속 펴온데 대한 농민들의 분노의 폭발이었다. 계속해서 수입해오는 외국농축산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농촌살림살이에 큰 몫을 담당하던 소마저도 헌신짝마냥 헐값으로 폭락하자, 더이상 농민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외국농축산물 수입반대", "소값개값" "소값폭락 책임지고 농가부채 탕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민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이러한 소몰이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농민운동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다양한 방법의 선전력과 투쟁력이 동원되고(경운기, 트랙터, 소잔등에 구호 붙이고, 시위에 나감)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일반농민들도 함께 참여, 실제적으로 몸싸움을 하는 실천적 싸움을 하였고, 관과 경찰의 저지를 과감하고 끈질기게 풀어 나갔다. 또한 농번기라 할 수 있는 봄·여름에 대대적으로 농민들이 참여하여 계절성을 극복했으며 특히 주목할 것은 지난해 농민운동에서 저지선을 뚫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농민들의 참여가 활발했고, 싸움의 과정에서도 놀라운 지혜와 끈질긴 투쟁력을 발휘하였다. (관의 저지선을 돌파할때 면 앞장서서 소고삐로 위협하며 나아가고, 몸싸움에서도 악착같이 매달리어

싸우고 옷핀으로 찌르기 등) 이러한 여성농민들의 적극성과 주체성은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농촌사회 전반에서 여성농민들이 맡은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민의 권익을 바르게 찾으려는 끈질긴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인 것이다. 반면에 1회적인 싸움으로 끝난 것, 좀더 치밀한 계획과 조직적인 싸움으로 연결이 안된 점, 지역단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지 못한 점, 정치싸움으로 연결이 안된 점 등의 반성할 점을 들 수 있겠다. 우리는 이것을 거울삼아 올해의 농민운동도 활발히 끈질기게 전개해 나가야겠다.

2. 여성농민(회)의 과제

본회는 작년도 소몰이 싸움에 대한 성과와 부족한 점을 공통으로 이해하고 우리도 부진했던 활동을 반성하면서 여성농민운동을 담당해야하는 주체성과 이땅에 올바른 농민세상을 이루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몇가지 우리 여성농민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 바뀐 내용과 올해의 과제를 살펴보자.

첫째, 그동안 사무실 중심으로 일하던 것을 현장(군)단위 활동에 주력하기로 한다. 이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일들을 회원 및 농민들과 함께 긴밀하고 빠르게 풀어나가기 위해서이다.

둘째, 홍보선전지를 많이 만들어 선전활동을 활발히 하여 조직력을 키운다. 반농민적 정책과 제도들을 농민들에게 널리 알리어 올바른 농민 여론을 만들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력을 기른다. 셋째, 마을이나 지역실정에 맞게 과제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단위 운동을 활성화 한다.

넷째, 여성농민운동의 주체성과 적극성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학습을 통하여 실천력을 기른다.

제가 사는곳이 충북 음성군 대소면 최성미 부락입니다. 저희부락이 최씨가 모여서 사니까 최성미 부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농민운동을 8년간 했습니다. 하필이면 싸움얘기를 저한테 시켰는지 몰라요. 제가 농민운동을 하니까 그야말로 군수도 모르는 자금을 82년도에 2천만원을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마을에 혜택을 주겠다고. 무이자니까 마을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성공하지 않으면 성공못한다고 받자고 하고 저희회원들은 군수도 몰래 2천만원이 무이자로 들어오는게 어딘가 석연치 않아서 받지말자고 했습니다. 근데 마을사람들은 2천만원이나 하는 큰 돈을 안받을 수가 있겠냐며 받자며 갈등이 생겼죠. 아마 이게 저들이 노리는 음모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2천만원 받지 말자면 괜히 회원들 때문에 못받게 됐다면서 이간질 시킬것 아녜요. 그래서 받기로 했는데 2천만원이 들어오니 서로 받을라고 아우성치죠. 송아지를 110만원에서 130만원의 가격으로 쳐서 한마리씩 샀고 개중엔 그 송아지를 2마리로 만든집도 있죠. 장에 갔다 팔려하니 제값도 못받게 됐을 상태에 있어요. 안되겠기에 대회를 열자. 저희지역에 특색이 있는게 세제가 개정되기까지 78년에서 82년도 사이에 술한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소몰이 싸움을 하자고 했죠. 그래서 저희마을에서는 경운기를 합쳐서 20대와 소 7마리를 싣고 농악대도 싣고 막걸리도 싣고했어요. 우리는 소몰이 싸움을 하는데 학생들처럼 과격하게 건물을 부수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소몰이를 하면서 농악도 치면서 놀고 막걸리도 마시면서 목도 축이는 의도에서 싣었어요. 그날 아침 일찍부터 비가 오고 음성 지역까지는 70리예요, 유인물을 만들어, 가면서도 뿌리고 장바닥의 농민들한테 뿌리고 군청에 들어가 군수를 만나는게 우리의 목적이었지요. 경운기에다 소를 싣고 소에다 옷을 입혀 '개값만도 못하는 소값신세' '소값 통값' '못살겠다 갈아나보자' 등을 써붙히고 경운기마다 만장을 드리우고 경운기에 마이크를 달고 성능좋은 경운기를 앞애다 세웠어요. 전경들이 막는 방법이. 여러가지 줍아요, 모래로 막는다든지 차를 세워둔다든지 여러가지여서 그럴때 옆으로 빠지든지 바로 밀치기 위해서 잘 달리는 경운기를 앞애다 세웠어요.

또 저희가 경운기에 소를 싣는 목적이 하나는 소값이 싸서 개값보다 못하다는 의미와, 또 하나는 소가 학생들 데모할때 소는 가루 있죠. 맷고 씨럽고 하는것, 소가 그 최루탄을 맞으면 앞에 보이는데 다 적이에요, 근게 그 차만 보이면 소를 끌어내서 고삐를 풀어놔요.

그 두가지 목적에서 소를 경운기에 실었어요.

동원수에서 남자는 70명 정도였고 여자는 30명 이었어요 아까 자매님을 만나 무엇보다도 반가운게 그 이야기 입니다.

무극에서 집결해서 음성까지 가는데 무극에서 음성까지의 길이 서울가는 길이라 차가 많이 다니는데 전경들이 길을 막았나봐요, 길을 막을때 마지막으로 오던 택시가 있었는데 그 운전수가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경찰이 어디에 배치해 있다는 등 그래서 그 큰길에 우리만 드세놓게 진출했죠. 비가 와서 농악은 못치고 출고 배고프지만 계속 진출하고 어느정도 가니까 제일앞에서 전경들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정보과장이란 놈이 대들기에 "야 대들지마라. 너네들이 소값 책임질려면 대들어." 했더니 나서질 못해요. 또 음성 들어가는 고갯재에서 도로정비를 하는 물품으로 길을 막는다던지 해서 8대 경운기로 도로를 꼭 채우면서 진출했어요. 또는 12t 차를 길에다 막아놓고 뒤에다는 모래를 다 쌓아 놓은 적도 있었어요. 경운기로 차바퀴옆에 끼워놓고 차로 올라가 쿵쿵거리니까 전경들이 달려들죠 그러자 자매님들이 몽둥이로 달려든 놈들을 때리니까 차마 나서지 못하고 경운기로 말고하니까 차를 빼버리데요, 우리는 음성까지 길을 막아놔오니 장터에 있는 농민들이 다 돌아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음성재에서 다시 의논을 했어요. 그때 보안대 담당이 달려와 "군수나 경찰서장 목아지 날리는게 목적이나"고 묻길래 "그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하길래 "이길로 군청으로 가 군수와 면담하는게 목적"이라고 했더니 "장터에서 유인물 뿌리는걸 우리가 해주겠다. 그러니 복지회관에 전부 모여 있으면 군수와 면담을 시켜주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원과 의논해 보겠다면서 합의를 보고 경운기를 최대한으로 느리게 가라고 하고 저들이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음성 시내 장터에 들어가니 농민들이 많이 있으면서 막 박수를 치잖아요.

어떤이는 내가 가진게 이것밖에 없다면서 시계를 주지않나, 담배를 주지않나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장터를 한바퀴 돈후 꽃동네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천주교회로 가자면서 이정도 됐으니까 끝내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로는 집으로 간다고 하고 몇명만 먼저 군청으로 갔어요. 나머지는 조금후에 도착하고요. 아 군수실에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기에 "아! 군수님이 저분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지 않나"고 했더니 비오는데도 밖으로 나와 인사까지 하고 나중에 30리까지 쫓아와 술도사주기도 합디다. 어떤것은 직행버스가 멈추더니 서울로 가자고 하는 사람, 음성시장에서 밥을 먹는데 서로 밥값을 내려고 하는사람, 많은 일반농민들이 호응을 해줬어요.

나중에 시위가 끝나고 8명을 연행하겠다는 소문과 어떤데는 연행했다는 소문이 났어요, 또 하루는 농협 감사가 있어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지서장이 와서 "시간이 나는데로 정보과장한테 전화를 해주십시오" 하길래 "아니 나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정보과장한테 전화하겠다는 등 4명만 와서 정보과장한테 사과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겠다는 등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길래 그 말을 못믿겠다며 가질 않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쪽 피해자가 전부 8명인데 오래 병원에 있었던 사람은 25일이나 있었고 빨리 나온 사람은 일주일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싸움이 붙고 그쪽에서 다쳤는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시비와 주먹질을 해서 많이 다친것 같아요.

그것은 시위할때 협의회 깃발하고 농민회기를 달고 했는데 그들이 올라와 기를 찍으려 하자 농민들이 그걸보고 싸움이 일어났나 봐요.

그 이후 지역을 대상으로 (130명) 소값 피해액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2천6백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농수산부, 군수, 관계기관에 피해보상 요구를 하였으나 답변이 동문서답이예요 그래서 지금은 재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농수산부 장관을 초청하여 면담할 계획과 안되면 소피해금 이상을 털어놓어서라도 전국 소피해 대상자와 함께 사명감을 갖고 투쟁할 겁니다.

아마 음성지역의 소몰이 싸움이 외국농축산물 수입반대운동의 큰 힘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봅니다.

이 투쟁을 하면서 가장 가슴아픈게 농민아닌 도시사람이 외국농축산물을 먹고 쓰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마는 농민이 그걸 먹고 쓰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각 마을에 나오는 대역양곡등이 70~80%가 외국것이고 사료도 거의 미국것입니다. 백번 수입반대 운동을 해도 우리가 안사고 안쓰면 안들어 오는 것이예요.

이것은 농민 스스로가 외국 것인지를 알아봐야 해요.

우리나라 식량의 반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해 먹어요. 요즘 소값피해 보상으로 나온게 모두 세금으로 된거예요. 왜 한 개인의 야욕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까?

저도 농민운동하면서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후회는 없어요.

농지세제 하나를 뜯어 고친다면 농민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을까 하는 기대로, 심지어는 어떤 회원하나를 서명받기 위해 몇날며칠을 언덕을 넘어서 가도 안되기에 새벽같이 찾아가서 받아온 적이 있어요. 그러자 그 회원이 군수 아버지까지 서명을 받아냈어요.

자세히 얘기하면 세제 대회 날짜를 받으니까 군수랑 경찰서장이 찾아와 저희집 안방이 군·경찰서가 됐어요. 부당 농지세제 시정 농민대회라고 하니까 '부당' 하고 '농지'자만 빼 주라고 일주일을 우리집에서 자고 갔어요. 또 대회를 치르고 나니 청와대나 농수산부나 특별지시를 내려 썼는지 열흘동안 보통 20~30 매씩 답장을 썼어요.

그렇게 피땀을 흘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된거지 농민들이 예뻐서 된 것은 아니에요.

또 한가지는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결이 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단결이 크게 안되어도 해결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어요. 지금 농민들 빛이 너무 많이 져있어요. 앞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아 질거예요. 쌀 한두 가마가 아니라 흉한짓이 많아요. 몇 백만원 갚아야 되고 먹고살아야 되고 그래서 특히 농촌에서 오신 자매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막중합니다.

● 일선에서 우리 여자들이 용감했제

편집부

※ 1987년 5월 26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입석리 도동부락 심삼순 자매 댁에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분회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도동분회의 월례회가 열리는 것이다.

도동부락은 30 여호가 되는데 주로 쌀농사를 짓는다. 작년부터 이앙기와 콤바인을 사서 분회사업을 하게 되면서 남는 일손으로 딸기농사를 부업하여 25호 정도가 4천여원을 하고 있다. 바쁜 딸기철에도 입수옥 회장등 여성분회원 5명, 남성분회원 2명이 참석한 도동분회 모임을 구경가 본다.

입수옥 자매: 딸기 따느라 오후 내내 쪼그리고 앉아 피곤하시지요 썬머타임인가, 전두환시간인가 때



문에 요즘 설겅이 하고 나면 보통 11시가 넘습니다. 자, 농민가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회원들이 힘차게 농민가를 부른다.)

임자매: 우리 서기님께서 월례회의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복 자매: 오늘은 여성농민의 「텃밭」에 우리 분회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도동분회가 어찌 생겨서 어떤 일을 해 오고 있는지 자랑도 하고 어려운 점은 같이 털어 놓고 해봐요.

강옥례 자매: 내가 이 동네 켄 오래 살았으께, 자랑좀 하지라.

10년 전부터가 농민회라는 기 생겨서 매년 팔월 한가위 다음날이면 농민잔치를 열었제. 각 리별로 학교마당에 모여서 풍물놀이, 줄다리기, 강강술래, 물동이 이고 나르기, 별의별것 다 재미있게 했당께. 근디 그제 없어진 지 한 삼년 될꺼여. 요새도 도시서 오는 사람들이 지금은 왜 그 잔치 안하냐고 많이들 물어봐.

신광호 형제: 10년전부터 해서 7년 계속했는데 지금은 학교운동장을 빌릴 수 없어서 못하는 거지

정병은 형제: 올해는 학교와 의논해서 운동장을 빌릴 수 있으면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데

임자매: 우리 여성분회는 어떻게 해서 생겼지요?

정형제: 그야 뭐 남자분회가 있으니까 여성분회가 생기게 되었제.

임자매: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여성들이 스스로 할라 하지 않았으면 안된다구요.

김자매: 나도 들은 애긴데, 남자들이 카뚜리 농민회가 뭔가 하더니만 술먹어두 행패 안부리고, 노름도 끊고 남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애기들이나 부인, 부모께
도 속 안 썩이구 잘 형제 카뚜리
농민회가 좋은 건줄 알았제. 그래
서 우리 여자들두 해볼만 허다고
느꼈제.

심삼순 자매 : 아마 제작년인가,
부부동반으로 야외에 놀러갔을 때
남녀 나누어서 교육을 했는디 그
때 임수옥자매가 여자들도 농민
운동이 뭇인지 알아야 하고, 우리
여성들도 농민운동 해야 하는 까닭
을 야그했제. 모두가 옳은 얘기라
고 덕고 한번 해보자는 데 의견이
모였어라. 86년 정월에 여성농민
교육에 5명이 다녀와서 문쳐갔고
이월에 분회를 만들고, 지금은 두
사람 놀았당께.

임자매 : 처음 월례회하던 생각
이 나네요. 저는 같은 입석리라 해
도 산 하나 넘어야 하니까 월례회
의에 올려면 남편이 오토바이로 태
워다 줘야했지요. 그래서 남자와
과 월례회의를 같이하기로 했는데
하다보니 불편하기도 하고 서로 차
이가 많았어요. 결국 날짜는 같더
라도 장소는 다른 곳에서 따로 따
로 하자는데 의견일치가 되어 지
금은 각각 하지요.

유요순 자매 : 회의 시작으로 농
민가를 부르면 정신도 피륙 나고,
참 많은 얘기를 했지요. 자기집이
나 이웃에 있었던 일, 연합회나 다
른 지역에 일어난 일, 활동해야 할
과제를 정하기도 하고요.

심자매 : 공부도 하잖아요. 다람
쥐 꽃신, 어머니죄인, 학마을 사
람들을 읽고 느낌을 얘기하고, 수
입개방, 농가부채에 대해서도 알
게되고, 작년엔 풍물봉사반이 들
어와서 마을사람들과 노래, 춤도
배웠지요, 그때 학생들 붙잡아 가
는 거 말리느라고

정형제 : 그때 강옥례자매께서 제
일 용감하셨지요?

감자매 : 처음에 풍물 배울땐 남
자들이 거의었는데 여자회원 들이
끝까지 남아 장구를 배웠지. 마을
사람들도 툼툼이 와서 노래 배우
고, 시알 먹은 애덜까지두 성주
풀이를 지금두 얼마나 잘혀 / 풍물
배던 마지막날 동네 잔치 하려구 탈
도 만들고 이것 저것 준비하면서
노래부르는데 난데없이 형사들이
회관을 에워싸고 들어오더니 사람
들 주소, 이름 적고, 벽에 붙인
노래랑 풍물가락을 사진찍고 학생
들을 데려간다는 거. 남자회원들이
가만 있데. 근데 우리 여성회원덜
이 나서서 '학생들을 왜 데려가
냐, 절대 못 데려간다'고 학생들
을 둘러쌌지. 경찰이 '학생한테
하자있으면 당신이 책임질테지요'
하구 겁을 주더라구요. 그러구 있
는디 밖에서 형사랑 남자대표간에
야그가 돼서 학생들의 신원을 확
인하고 아침에 보내준단면서 형사
기동대차에 실으려 하지 안켰어.
우리 여성회원덜이 형사한테 '학
생들만 보낼 수 없다, 우리두 학생
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께 대표 두
사람이 함께 가겠다. 그라고, 30
분이 지나도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가 경찰서로 쳐들어 간다'고 했
지라. 대표 두 명과 경찰이 간 후
긴급대책회를 해서 아까 한 약속이
안 지켜지면 경찰서로 쳐들어가기
루 의견이 합쳐졌지라. 약속시간
이 지나도 안응께 택시 두 대를
불러타고 경찰서로 갔어. 경찰서에
갔더니 대표들만 나오더니 경찰서
장이 없어 못나온다 하데. 날씨가
습지만 학생들이 안 나오는데 우
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 우리
도 들어가서 기다릴라고 경찰서로

들어가니까 보초군인들이 못 들어
가게 막더라구. 한참 몸싸움을 했
제. 우리 여자들은 소리소리 지
르구 농민가도 부르구 학생 내놓



으라구 했제. 한 형사가 오더니
'다방에 가서 기다리라'고 허더
구만. '당신 미쳤소, 우리 촌사람
들이 다방 가서 차마실 정도로 돈
있는 줄 알아? 잔소리 말고 학생
들이나 빨리 내보내'하고 혼썰을
내렸제. 10분내로 안 나오면 처
들어 간다니까 정보과장이 나와서
안내실로 모셔서 우유니 커피니 대
접하데. 그래도 아우성쳐 갖고 학
생들과 기동대차 타고 돌아왔제.
우리 여성들이 일선에서 용감하다
는 걸 모두 알게 된 일이지라.

임자매 : 작년 추수감사제때도 형
사들이 동네입구를 막고 들고가던
점심밥을 뺏어갔잖아요. 대회후에
우리 여성들의 주장으로 경찰서장

사과를 요구하여 점심밥 보상받았
던 적도 있지요.

심자매 : 월회비 모아서 적금도
넣고 미원, 물라 안먹기 운동, 또
T.V. 시청료 거부운동, 양담배 반대
스티카 불이기 등등 활동은 많이
했제. 근데 애 봐줄 사람이 없어
서 교육이나 회의갈 때 활동하기
가 힘들제.

유자매 :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
디 부부 전체가 활동하자니 힘들
제.

임자매 : 남자들의 활동이 많아
지면 우리 여성들은 더 시간내기
가 힘들지요. 집안일, 애키우기,
농사일,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활
동한다는 건 정말 힘들지요.

감자매 : 그래도 안 할 수 있어
라?

모두들 : 그건 그러.

(모두 웃는다.)

임자매 : 이렇게 얘기 하다보면
밤 새우겠어요. 내일 또 일해야
하니 그만 일어납시다.

유자매 : 다음 월례회의는 6월
5일입니다.

바쁘고 피곤하지만 모여서 얼굴이
라도 봅시다.

분회는 이렇게

1. 분회란 무엇인가?

○분회는 마을단위나 농촌교회(공소) 단위로 5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농촌사회민주화와 공동체적 삶의 실천운동의 뿌리이다.

○분회의 목표는 농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것 뿐 아니라 농민문제를 부락민과 공동해결함으로써, 마을을 민주화하고 전체 농민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이웃 마을에도 조직을 확대하여 전체 농민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뿌리가 된다.

2. 분회 운영을 잘 하려면?

○매월 한번씩 정한 시간에 모임을 가진다.

○회의록을 준비하여 기록을 한다.

○모임에서 나눌 거리(학습자료, 마을이나 세상돌아가는 이야기,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등)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다.

○모임에 참가한 모두가 자기 생각을 발표할 수 있게 한다.

○분회원이 함께 실천할 과제를 정하고 점검, 평가한다.

“우리땅 찾을 때꺼정은 한발짝두 안물러갈꺼!”

서울, 종로5가 기독교방송국 옆 높은 건물에 길다란 현수막이 내려뜨려져 있다. 「삼양사는 소작답을 농민에게 즉각 양도하라.」 전라북도 고창군 농민 삼백여명이 내땅을 찾기 위한 오랜 싸움 끝에 이제 지주와 답판을 지으려고 서울로 왔다. 8월 12일부터 시작하여 농성 한달만인 9월 11일 지주와 답판을 짓고 고향으로 내려갈 때까지 지주네 회사인 삼양사 본사 4층 강당에서 농성을 하였다. 「첫발」 편집자는 농성 9일째 되는 8월 20일 저녁 농성현장을 찾아 열심히 싸우고 있는 여성농민들과 만났다.

○고생들 많으시네요. 몇분이나 되시나요?

—새루 올라오는 이두 있구, 또 급한 불일루 내려가는 이두 있구 해서 늘 변동은 있는디, 한 3백명은 실히 되지요.

—남자허구 여자허구 반반씩 되까? 남자가 좀더 많기는 헐테지만 우리여자들이 더 잘 싸운게 여자가 많아봐야. 육십, 칠십원 어른들 두 많이 계시구.

○왜 서울까지 오시게들 됐는가요?

—자세히 얘기하자면 좀 길어. 고창군 심원면, 해리면 사는 우리네가 열일곱 부락 육백집인데, 삼양사 논을 소작짓구 살아왔제. 이 땅은 원래 바다를 막아서 논으루 만든 간척답이여. 일제 때 김연수라구 허는 큰 부자가 총독부 돈을 받아가지구선(요새돈 30억원)논을 땡글어서 농민들한테 소작내준 것이제. (1939년 정읍세무서에 논 587정보 동기)

그 뒤루 해방이 되니깐, 땅은 논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그렇게 안 되앗는가? 그렇게 가까운 땅 주기는

싫구. 그 형되는 김성수란 사람 백이 좋았든갑만.

—아, 그 왜 있잖여. 고대대학교 허구 동아일보 허구 세웠다는 그 사람 말이여. 그 사람이 하필 농지개혁 책임자가 되앗다데. 그레 동생네 땅을 빼돌려 준거라데. 반들은 조금 땡그는 염전 으루다 바꿔놓구, 반들은 아직 논이 안 되었다.(미간척지)허구 거짓말을 꾸며제. 십년 가까이 지어먹은 밀짖한 논을 말여.

○그래서 우리땅 내뉘라 하시는군요?

—40년 세월이 지난 뒤에사 이렇게라두 싸우게 됐으니, 그동안 갔다 바친 소작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요? 그 땅을 여덟번 살수 있는 돈잉게. 우리더러 무리한 요구한다군 못허제.

—종게 말루 따져서 뭇일 걸으른 집 떠나 이 고상 허것소? 3년 전부터 베라벨 방법으로 두 안땡. 소작료 못내겠다구 형

게 인젠 “땅에서 나가라”구 지주들이 재판을 부치구 — 이걸 두구 적반하장이라구 하는가?

○그럼 올라 오실 적엔 어떻게들 오셨어요?

—그 얘기하자면 연속극 같어요. 정읍에서 재판 열리는 12일날 아

침에 버스 두대를 불러서 서울루 출발했는데, 경찰이 검문소에서 우릴 막지 않겠어요? 광주루 해서 간 사람들만 무사했구. 우릴 정읍에 갖다 내려놓드만요. 그러다구 우리가 불러서나요? 기차 타고, 고속버스 타고, 직행 타고 다들 제주껏 올라왔지요.

—오긴 왔는데 어디가 어딘지 촌사람들이 알 수가 있나?

—그리야, 뭇때나 황당하던지. 고려 대학생들이 어떻게 알구서 마중 나와 뽕옹게 망정이지. 지난 여름에 고대생들이 우리게루 농촌활동 안 왔능가요? 중말 반갑더만.

○그렇게 해서 오셨군요?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싸우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은 다음날, 지주들이 놀래갓구 협상하자드만. 우리더러 불법침입이라. 누가 더 큰 불법을 저질렀는디. 씨게 줄팅게 땅을 사래나? 우릴 그동안 땅값을 내루 너무 많이 냈단말여. 그거 도루다 게워놓라구 허두 할말 없을 판인디.

—우리 주장을 커다랗게 써서 내어달구, 나팔두 밖으로 달아서 시시때때루 방송도 허구. 또 종이예다 글을 박아 길에서 돌리기두

허구. 우리 신문두 안 땡글었는가?

—점때 15일에는 해방절 기념식에 가서 우리 사정을 호소했드니, 돈을 모아주데요. 한 20만원 가까이 됐지요? 사람들 겁나게 많이 모였드만.

—그날은 좋았는데, 고 답날은 대학교라든가? 글루다 모금을 하러 갔는데, 경찰이 막구서는 우릴 때리고 차구 허서 땅바닥에 쓰러지구 궁구르구.... 잡혀간 사람이 일여섯명, 병원에 실려간 열다섯은 뽕땅 여자들이었제. 난 여적지 어깨쪽지를 잘 못 써.

○이렇게들 다치셨는데 안 무서워요?

—점엔 무서웠제. 한 번 맞구나니깐 그 뒤론 좀 덜 무서. 약도 나구.

—잡혀들 가구 남은 여자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허구, 사설을 뜯게 서울 사람들이 한 5백명 몰려와서 경찰에 항의하데.

—우리 엄마들이 우니깐 새 파랗게 칠은 전경들 중에두 눈물을 흘리는 이가 몇 있었어. 결국 높은 사람이 사과허구, 치료비 물어주기루 약속허긴 헐는디, 나중에 봉개 치료는 무슨 치료? 병원에 실루가서 치료는 커녕 먹을 것두 안줘서 다음날 아침에 고냥 실려들왔제. 인정많은 사람들이 우릴 교회에 데려다 죽도 췌 주고, 약도 발라주고 하드만.

○그리고 보니 여기 농성장에 별거 별거 다 있네요.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잡숫는 거랑.....

-정말 없는거 없이 다있지. 밥두 여기서 해먹어. 석유곤로 3개, 술단지야, 그릇이야, 옛그제는 냉장고겨정 들여다 주드만. 부락 별루 당번 짜서 해먹제.

-처음엔 댄몸으루 왔으니 막막하 더만요. 식구는 3백명이나 되는데 댄으루 댄기는 댄했지만, 노인네들과 여자들은 댄이 입에 안맞아 댄칠 굶은 사람도 꽤 있어요.

-스치로폴인가 그거 깔구잔께 참 좋드만. 그것두 댄백장 들어왔제? 첩엔 댄바닥서 웅크리구 자갓구 삭신이 안쑤신 디가 없었어.



-우리가 삼양사 4층에다 좋은 집을 산 심인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뭔가요?

-아. 집에 두구 온 애들 걱정, 농사 걱정, 걱정허기 시작허른 한두 끝두 없지만 꼭 참아야지요.

-난 밤에 누가 쳐들어올까봐 켈 걱정되데. 이 회사 지하실에 밤이면 바글바글허. 구사대라는게 있어갓구 하룻밤에 만원씩 받구선 우릴 노리는갑드만.

-난요,앞에 나가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두 골치예유. 날마다 전체 회의때 하구실은 말은 있는데, 수백명 앞에서 뭘뎡게 말을 허야할지?

○누가 제일 미우셔요?

-그거야 지주들이제. 우리땅 텃어먹은 것두 밍지만, 어떻게든지 살살 달대서 내려보낼려구만 들지 해결할 맘은 꾀꿈도 없어. 촌놈이라구 겁이나 주구.

-우릴 사정없이 때린 경찰두 미워요. 우린 삼양사허구 싸우러 왔는데 왜 경찰이 우릴 때리는거? 이상허.

○반대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이들은 왜 도와준다고 생각하셔요?

-난 그것두 잘 모르겄데. 우리야 땅 찾자구 이리지만, 아무 이득 없는 사람들이 같이 싸워주구, 도와주구.

-우리가 농사 저야 서울사람들이 밥 먹구 상께. "농민들두 잘되라"구 그라는거 아니까?

-우리가 땅 찾구나온 도와준 사람들한테 농사저서 쌀 부쳐줘야제

-그나저나, 이번 농성 덕분에 우리여자들두 출세했어. 뭘 모퉁게 할 말 못 허구 죽어지내 왔었는데.

-많이 똑똑해졌제. 시상엔 남자랑 여자랑 다 같이 허게 돼 있는 법이여.

추곡 수매가에 할 말 있다.

(이글은 추곡 수매가에 대해 회원들과 함께 나눈 얘기를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얼마전 전원일기를 본 일이 생각난다. 여흥내내 살다시피하던 고추밭에 탐스러운 고추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마을 아낙들은 너도나도 그밭에 주인인 일용아내를 부러워한다. 울 고추농사가 잘 안돼 이번만은 고추팔아 자잔한 빚도 가리고, 애기 옷도 좀 사줘야지. 아니 어머님 잡숫고 싶어하는 돼지고기라도 좀 사서 볶아 드려야지..... 이태저태 생각이 많다. 그러더니 잔밤의 복우로 몽땅 못쓰게 된 고추밭에서 주저앉아 땅을 치는 일용아내의 통곡 소리가 들리질 않는가! 잔밤의 태풍과 복우로 고추밭이 몽땅 얼매이 된 것이다. TV를 보던 식구들은 너나 할것 없이 콧등이 시큰하여 서로 눈치보며 눈물뺨기 바빴다. 배추도 얼무도 파도 무엇하나 제대로 지어진게없었던게 올해 농사였다. 이제 들뜬 군데군데 쓰러진 벼가 심난하진 하나 그런대로 누른물결이 일렁인다.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쌀농사인 것이다.

올해 농사가 예년에 비해 어땠습니까?

홍 "소출이 많이 떨어져요. 태풍도 많이 불었고, 오랜 장마로 일조량도 적어 아무래도 쪽쟁이가 많아요. 정부에서는 올해도 역시 풍년이라며 700만섬의 수확을 예상한 다던데 어떻게 나온 제산법인지 모르겠어요."

홍 "아 경기도는 그래도 피해가 적어 덜하다 치더라도 아래대는 논밭이 어디가 불었는지 모를 정도로 수해를 입은 곳도 있고, 수확을 한다해도 껍데기 썩은 허연 벼가 많다는데 그곳이 더 걱정이여."

올해 쌀생산비가 농민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3000원 한가마당 86,000원으로 계산되었다. 고조사 내용을 간단히 보면 제산방법은 농수산부의 제산방법을 그대로 했으며, 2년전

인 85년도에 농수산부의 조사표에서 밝힌 영농시설비나 제부담금등을 하나도 올리지 않고 제산했는데도 86,000원으로 나온 것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제산법으로 웬만한 수치는 그대로 제산해서 이정도인데, 농수산부에서 해마다 제산하는 쌀 생산비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알수가 없을 정도로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재벌들 일각에서는 정부수매가가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몇년전 농수산부장관 중에 "수매가와 평균 생산비를 비교해서 농민들이 복리를 취하고 있다"는 망언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올해도 변함없이 추곡수매는 할것이고, 도둑이 제발저런다더니 항상 동결이 아니면 한자리 수로 올려 정하던 수매가가 올해는 14%인상으로 정해졌다. 그것도 원래 7~8%밖에 안치는 것인데 높은 양반들이 하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파격적으로 올려주었다. 이것 역시 농민을 위해 정해졌다기 보다는 다가올 선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농민에게 선심을 좀 쓰나 하는 생각에서 나온것임을 누구나 알수 있는 사실인 것이다. 이쯤에서 추곡수매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들어보면.

올해 추곡수매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추곡 수매가요? 언제 농민이 얼마쯤쇼 해본적이 있어야지요. 올려주면 좋고 안올려주면 어쩔수 없는 일이지요.

홍 세상에 제물전 놓고 남이 값 정하는 것은 농산물 밖에 없을 거요.

그럼 쌀값을 누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연히 농사지은 농민이지요! 정히 경제 돌아가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겠다고 하면 농민중에 대표를 뽑아 모여서 의논을 하되 그런 양반들도 한두명 끼고, 또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 정부에 있는 고관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면 농수산부에서 한두명 끼고, 이렇게 해야 제값을 알지, 쌀 농사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논밭에서 일한번 안해본 사람들이 제멋대로 값을 매기니 애당초 수매가라는 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여!

● 아이고! 수매고 뭐고 나는 안할거여. 그거 따로 말려! 동풍 받을려면 까다롭기만 하지, 잘 담아야지, 실어다 줘야지, 요즈음은 그나마 시정된것도 있다지만 아직도 틀어리다, 살대미다 이래저래 맺기는 것도 많아요. 죽게 해봤자 등급받기도 힘들고, 아래대 사람들은 어떨런지 몰라도 이동내는 수매하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도 안하면 안되니까 조금씩 하는거지.

● 하다못해 점 한통도 자기들끼리 단결해서 '100 원' 하고 정하고 나면 90 원으로 깎아 살 재주 있는갑, 100 원 다줘야지?

● 지방자치제가 된다고 된다면 어떻게 한번 쌀값 결정을 농민들이 할수 있을라나 모르겠어?

● 지방자치제가 말로만 되면 지금이나 다를것이 뭐 있겠어. 그놈이 그놈이고 하던놈들이 해먹겠지?

● 쌀값은 특히 논에 따라 다름텐데, 물이 좋은 논, 거리가 가까운 논, 경지정리가 잘 되어있어 평평하고 농기계를 쉽게 사용할수 있는 논, 소비지까지 운반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건데, 아 이동내만 해도 길 옆에 물 좋은 논하고 저 산 밑에 비탈진 논이 생산비가 다르게 먹히는데 어림 매려 잡아 얼마나 하는게 얼마나 엉터리난 말이여.

● 농민들도 "내 쌀은 얼마짜리니 얼마까지 안주면 안팔겠오" 하고 배짱 한번 찡겨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 아이구 어렵도 없지. 일반벼 사러 오는 중간상인들도 얼마나 까다롭게 따지고 깎고 하는데, 또 우리들이 돈 궁한걸 아니까 지멋대로 팔테면 팔고 팔려면 팔라 식이지.

● 요즈음 노동자들은 너도 나도 언제 그렇게 조합을 만들었는지 임금인상하라고 난리들이 떼네.....

● 아따 우리만 굶어 죽는가. 그뎨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같이 굶는 거지..

● 그제 말같이 쉬워야지. 어쨌든 쌀값문제는 우리가 두고두고 문제로 삼고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돼. 수매를 안한대손 치더라도 수매가가 정해지면 그수준에서 일반벼 값도 정해지는거 아니!

● 일단은 농협이 우리편이 되려야 하는데....., 너도나도 민주화, 내것찾기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번기회에 우리 농민들도 농협을 도루 찾아와야 할 것이여!

● 그렇다. 뭐든 해야한다. 결코 우리 혼자만 배부르게 잘 살자는게 아니다. 우리 농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나라전체의 본본한 자주적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쌀 생산비 조사를 위해 가계부도 적어보고, 서명도 받아내고, 질의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 보내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대회도 열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마을의 형편에 맞게 작제는 전단 돌려보기 부터 그 이외의 방법까지 차근차근 실천하자! 농민의 문제는 농민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가. 제도상의 문제

① 의·보시작 자체부터의 문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고 가난한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저소득자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험료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교직원등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그래서 의료보험증이 있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로 인식되었고 보험증 자체가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② 조합주의의 문제

○ 소득재분배기능을 못한다.

잘사는 사람은 잘사는 사람끼리 조합을 운영하기 때문에 적게내고 못사는 사람은 못사는 사람끼리 조합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이 부담한다.

따라서 고소득자는 많이내고 저소득자는 적게 냄으로써 소득분배를 한다는 기본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부익부, 빈익빈 심화됨.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세의 비율이 적고 간접세의 비율이 높은(70%) 나라에서는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만이라도 소득재분배를 제대로 해야함.

○ 사회통합기능을 못한다.

도시는 도시끼리, 농촌은 농촌끼리,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교육자는 교육자끼리, 농어민은 농어민끼리 의료조합을 하게되어 있어서 지역격차, 상호불신, 계층간 위화감이 없어지지 않는다.

○ 재정자립운영이 불가능하다.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들끼리의 조합은 만성후자인 대신 저소득층의 조합은 만성적자를 보임(이는 1981년 실시된 지역2종 시범의보에서 나타난 현상임) 소득재분배 기능과 위험분산 기능이 소규모집단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조합과 조합간의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를 할 수가 없다.

○ 보험료 징수를 놓고 조합과 가입자 사이에 충돌이 잦다. 특히 직종의료보험 경우 의료보험료가 비싸 가입여부를 놓고 조합과 가입자가 충돌. 한편 단독 조합으로서는 강제징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사업비보다는 관리운영비 지출이 더 많음.

나. 적용대상의 문제

① 소득역진현상

의료보호와 의료보험 대상과의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들이 의료보험 대상자가 된다. 즉 의료보호대상자이면서도 의료보험료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득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저소득자가 상위소득 계층으로 명목상 이전되는 소득역진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비율로 의료보호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에 끼이지 못할 경우 실질적 의료보호자이면서 보험료를 내는 부당함이 있음.

〈참고〉 의료보호대상

○세대당 월소득 4만3천원미만	}	거택보호(황색카드); 전액국고부담
재 산 3백2십만원미만		
○세대당 월소득 5만4천원미만	}	자활보호(녹색카드) 외래; 전액국고부담 입원; 본인부담 20%
재 산 5백4십만원미만		
		의료부조(청색카드)

② 보험대상자의 중복

이미 보험혜택을 받고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지역 2종 의료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음.

해남의보의 경우 피보험자 총 10만 8천 8백 44명중 2~3% 정도가 중복가입자로 보험증 반납소동이 일고 있음.

③ 지역내 직종 2종 의료보험신설로 고소득계층과 저소득 농어민을 분리 (지역내 소득재분배를 기할 수 없음)

다. 보험료의 문제-너무 비싸다.

① 가구당 소득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의보조합의 예산에 맞춰 평균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남의보의 경우 예산으로 20억이 책정돼 2만5천4백26가구(총 10만8천8백44명)에 나뉘어 부과되었음(1인당 연평균 19,466원으로 이는 50만원 봉급자의 세대당 의료보험료에 비해 6배이상 비싼셈임; 뒷면자료(참조))

② 가족수에 대한 추가부담, 세대별, 재산비례를 더 부담한다.

○농어촌 의료보험료는 세대별+(가족수×700)+소득비례+재산비례+기타 자산보험료에 따라 부과됨.

○공무원·교직원·근로자의 보험료는 근로소득만 보험료산정의 기준이 됨.

(근로소득×3~4.6%)÷2=보험료(반은 국가 또는 사용자부담)

즉 가족수에 대한 추가부담이 없음.

③ 해남의보의 경우(3천명농지소유 재산6백만원인 농민5인 가족)

소득비례 7등급 재산비례 7등급

⑦	세대별	가족원수×700	소득비례	재산비례	의료보험료
	900	+	(700×5)	+	2,600
	①	②	③	④	

○농어촌지역의 가족(노인, 어린이)은 소득원이기보다는 지출원이기 때문에 이들을 각기 피보험자로 해 보험료를 거두어 들이는 것은 부당하다.

○재산세와 소득세, 농지세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1년 열무달 내내 재산세, 소득세, 농지세를 내는 셈이다.

○즉, 공무원·교직원·근로자에 비해 ①+②+④=5,500원만 아니라 소득비례에 따른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 다시말해 소득비례에 따라서가 아니라 월소득에 따라 공무원 수준인 1.5%를 부담해야 한다.

④ 도시에 비해 너무 비싸다.

	월 수입	보험료	정부지원
도 시	40만원	1만원	50%
농 촌	?	평균 1만원	20%

○해남의보의 경우 개인당 1,500원(세대당 5인가족 1,500×5=7,500)으로 비싸다.

○정부지원 20%도 거의 조합운영비에 사용되기 때문에 전액 본인부담인 셈이어서 사실 의료보험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보험혜택상의 문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의료보험이 계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는 많이내고 저소득자는 적게내되 폭력은 꼭같이 받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의료시설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농어촌 주민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1차진료를 시·군으로 제한한 것은 단지 행정적 편의 때문이다.

① 도농간 의사 수의 비교 (농촌에 전문의 거의없음)

구	분	도 시	농 촌
인구만명당 의 사 수	의사수	6.07	0.91
	일반의	2.62	0.58
	전문의	3.45	0.33

(한국개발연구원 : 1984년)

② 의료시설의 대도시집중

5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의 의료시설 집중율

병 원	병 상 수	의 사	간 호 원
62.5	52.7	68.4	59.9 %

③ 전국 무의촌 현황

무 의 읍면	무 약 읍면	무의무약읍면
970	838	750 지역

(동아 87.10.5)

따라서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음. 즉 고소득자는 적은 보험료를 내고도 좋은 의료시설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반면 농어민은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형편없는 시설에서 천대받음.

나. 절차상의 문제점

① 조합상 문제점

㉠ 조합이라고 하면서 조합원의 자주적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않고 주체적 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 조합직원 채용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보연합회에서 공채한다.

㉢ 운영위원 선출의 문제

운영위원회가 조합의 전권을 장악함에도 조합원의 의사표시가 배제되는 현상. 각군 운영위원의 성분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군정자문위원, 이장 등 민정당원이 대부분임.

해남의보의 경우 운영위원의 평균나이가 55.1세로 농어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보다는 관에 붙어 행세하거나 하는 민정당원임(해남의보 총무과장 등 21인의 경우 전 해남경찰서 정보과 형사임).

㉣ 대표이사 선출의 문제

각군마다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자리를 놓고 민정당원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의·보조합의 예산이 큰데 비해 관리운영이 허술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이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조합장 선출문제

장흥, 담양등 2개군은 심한 자리싸움으로 아직 조합장을 뽑지 못하고 있다.

㉥ 가입강제의 문제

조합이면서도 가입탈퇴의 자유가 없다.

② 보험료 징수방법의 문제

㉠ 농촌경제 유통구조상 매월 현금납부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납부토록 규정한 것은 가뜰이나 저농산물 가격정책으로 신용하는 농민들을 이중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 명목은 조합비이면서 가산금이 붙는 것은 부당하다.

(가산금은 세금에만 붙을 수 있다)

㉢ 체납시 조합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지역주민들이 의료보험료를 거부하는 것은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다. 따라서 개선없는 강제징수는 국민권익의 침해다).

이상 농어촌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현행 농어촌 의료보험제도가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는 또하나의 관청이자 새로운 농민 수탈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현행 의료보험료 비교

공무원 5인가족(교사)				연소득 120만 농민 5인가족 재산 300만			
구분	내역	월소득	연소득	구분	월소득	연소득	
농 수 급 당 역	본 봉	273,000	3,276,000	소 득	100,000	1,200,000	
	교 직 수 당	105,000	1,360,000	의 료 보 험 료	세 대	900	10,800
	가 족 수 당	25,000	300,000		가 구 원	3,500	42,000
	장기근속수당	40,000	480,000		소득비례	2,600	31,200
	육성회수당	40,000	480,000		재산비례	1,100	13,200
	급 량 비	30,000	360,000		계	8,100	108,000
	상 여 수 당	연 400%	1,092,000	비 율			8.4 %
	정 근 수 당	연100%이상	273,000				
	합 계	513,000	7,621,000				
	비 율		1.3 %				
의 료 보 험 료		8,370	100,440				